



2020년 4월 22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Insight

5G ETF FIVG, 코로나 이후 더 성장한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있어 5G 기술은 가장 핵심적 인프라

최근 통신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5G는 5세대 이동통신규약을 의미한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전송속도는 20배 빠르고 처리용량은 약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G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5G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5G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

FIVG는 5G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대표적 5G ETF

5G 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수단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투자대상이 불명확하고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다는 초기산업의 특징때문이다. 그러나 ETF시장에서는 5G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종목들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종목이 FIVG이다.

FIVG는 코드명에서도 느낄 수 있듯 처음부터 5G산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ETF이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는 모바일 네트워킹, 무선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25%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인프라 등 특수목적 리츠로, 나머지 15%와 10%는 각각 네트워크 전문기술기업과 하드웨어 생산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FIVG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들인 퀄컴, 에릭슨, 자일링스, 아카마이 등은 개별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최근 수 년 동안 S&P 500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주가지수와 상관관계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계량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성숙될 때 FIVG는 가장 수혜 받는 종목 될 것

금년 코로나19 사태로 증시변동성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FIVG는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4월 중순까지 S&P 500지수가 12.6% 하락하는 동안 FIVG의 하락폭은 -9.9%로 차이를 보였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S&P 500지수의 금년 연율화한 변동성이 56.1%로 급등하는 동안 FIVG의 변동성은 51.7%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또 다른 대표적 5G ETF인 NXTG와 비교할 때도 유사하지만 우위를 보이는 퍼포먼스였다.

FIVG는 2019년 3월에 상장한 종목으로 트랙레코드는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사한 몇 개의 ETF 중에서 5G산업에 대한 목적성이 가장 뚜렷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VG는 향후 5G산업의 빠른 성장이 현실화될 때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 될 것이다.

ETF Insight

글로벌 ETF



ETF/자산배분 김훈길
02-3771-7528
Kim.hg@hanafn.com

RA 김중훈
02-3771-3112
joonghu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 필수적 인프라인 5G산업에 대한 수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이미 생활 속에서 익숙한 용어인 5G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세대 통신 규약을 의미한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전송속도는 약 20배 빠르고 처리용량은 100배가 많다. 5G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영역인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은 궁극적으로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을 추구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5G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온라인 수요를 급증시켜 5G로의 전환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5G산업의 성장에 있어 대규모 감염병이라는 이벤트가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미 데이터 저장과 트래픽 수요는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2021년 전 세계 1인당 월간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0Gb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된다면 데이터 저장 및 전송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저장용량 연 평균 25%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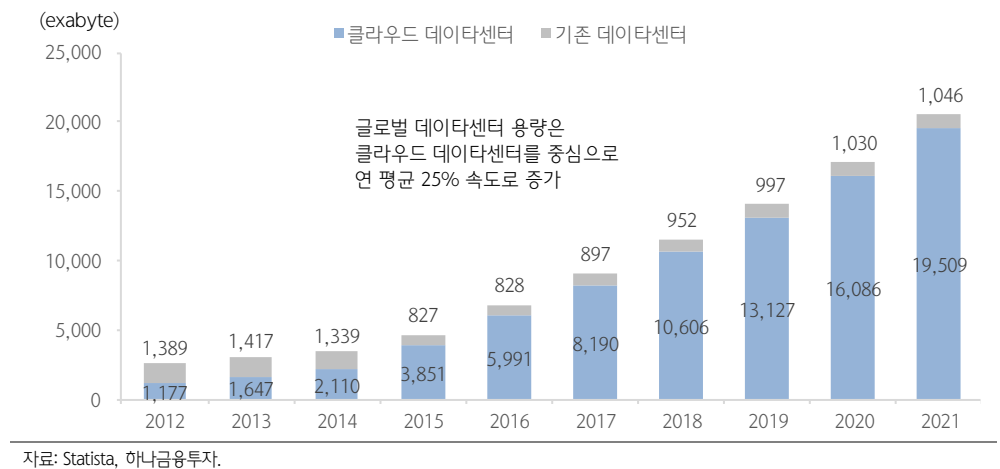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IP 트래픽 연평균 25% 내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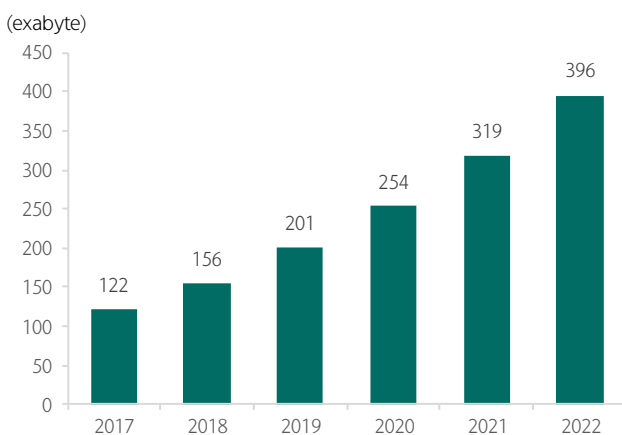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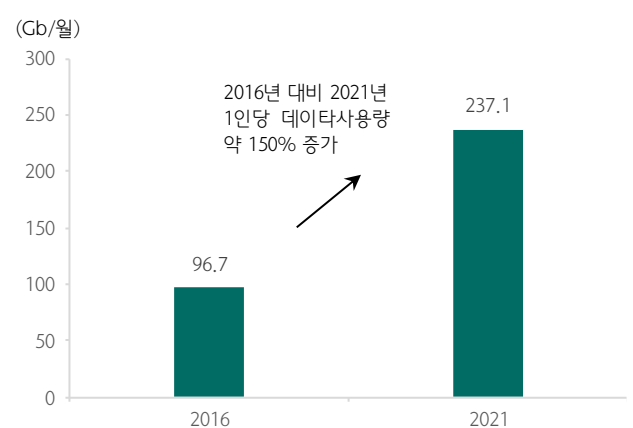


그림 3. 전 세계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최근 5년 150% 증가 전망



5G산업에 특화된 ETF는 종류가 많지 않으나 그 중에서 Defiance ETFs가 운용하는 FIVG 추천

5G산업의 대표 ETF로 Defiance ETFs의 FIVG 추천

5G 산업의 성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투자대상이 모호하고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초기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이 경우 5G 산업에 특화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방법 일 수 있다. 5G ETF의 선택의 폭은 NXTG, IXP, FIVG 등 몇 개에 불과해 제한적이지만 이 중에서 FIVG를 추천한다.

FIVG는 테마형 ETF 전문운용사 Defiance ETFs가 운용하는 3개의 종목 중 하나이다. 처음부터 5G 테마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5G ETF라 할 수 있다. FIVG에는 모두 74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편입비중은 시가총액이 아닌 등급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FIVG를 구성하는 가장 큰 업종은 반도체 섹터이다. 반도체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총 비중은 28%로 전체의 1/3에 가깝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리츠 역시 1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IVG에 편입된 리츠는 무선통신 기지국,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등 특수목적 리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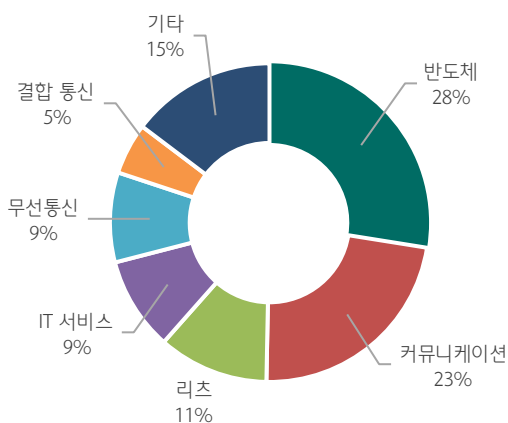
개별 종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퀄컴, 노키아, 에릭슨 등 무선통신 전문기업으로 각각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NXP, 지능형 컴퓨터 기업 자일링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카마이 등도 주요 편입 종목들 이다.

표 1. 전세계 5G 전문기업 ETF FIVG 기본 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운용사	Defiance ETFs	분배금 수익률(%)	1.05
상장일	2019-03-04	분배금 지급주기	분기
구성종목 수	74	추종인덱스	Bluestar 5G Comm Index
AUM(\$mil)	247.04	비중결정방식	등급별 차등
일 평균 거래대금(\$mil)	4.70	수익률(%, 1y)	-7.86
보수율(%)	0.30	수익률(%, 3m)	-11.39
평균 스프레드(%)	0.13	수익률(%, 1m)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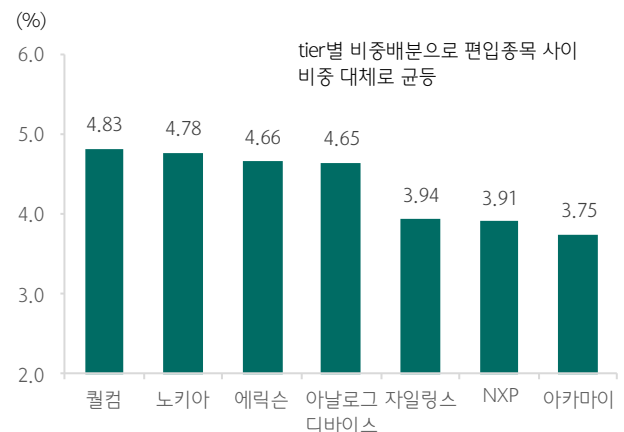
자료:ETF.com, 하나금융투자

그림 4. FIVG에서 반도체, 커뮤니케이션, 리츠가 큰 비중 차지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그림 5. 퀄컴, 노키아, 에릭슨, 아카마이 등 글로벌 통신 IT 기업 편입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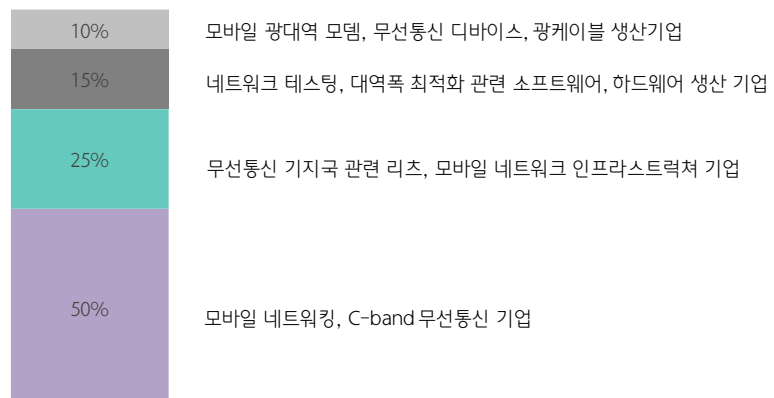
FIVG는 5G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은 ETF. 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리츠에 이르기까지 5G 산업을 폭넓게 포함

FIVG는 5G 산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주요 부문들을 폭넓게 포함

FIVG를 주목하는 이유는 5G산업에 대한 목적성이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FIVG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4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편입되어 있다. 첫 번째 50%의 비중은 모바일 네트워킹, C-band 무선통신 등 하드웨어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이 차지한다. 두 번째 25% 비중은 무선통신 기지국, 모바일 인프라 등 특수목적 리츠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5%와 10% 비중은 각각 네트워크 전문기업과 하드웨어 생산업체가 차지한다. 5G 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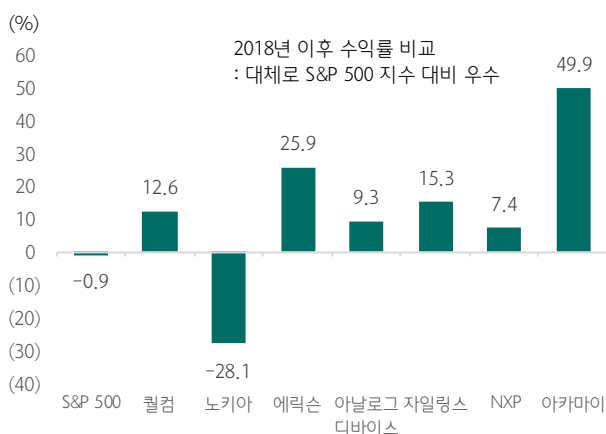
FIVG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의 개별적인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그림7>에서 보듯이 최근 수 년 동안 시장 대비 대체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S&P 500지수가 3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반면 FIVG의 주요 기업들은 평균 10% 내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기업들의 S&P 500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장과의 낮은 상관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중요한 미덕이다. 변동성 국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구조적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FIVG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5G 기업 ETF FIVG 편입종목 섹터 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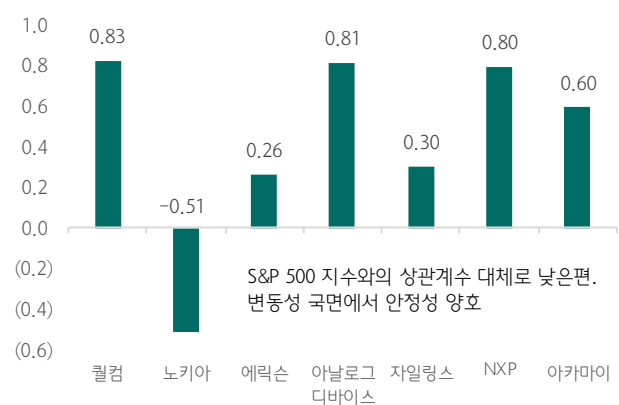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그림 7. FIVG 주요 편입기업들 수익률 지수 대비 양호(2018~)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8. FIVG 주요 편입기업들의 S&P 500과의 상관계수 낮게 형성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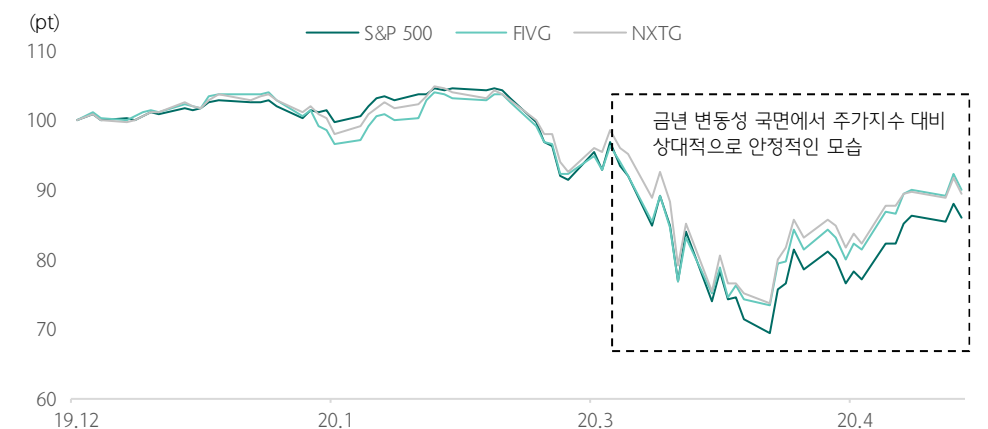
경쟁 5G ETF NXTG와 비교할 때 FIVG는 수익성과 변동성 양 측면에서 조금씩 비교우위 보이고 있음

수익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FIVG가 최선의 5G ETF

FIVG와 비교할만한 5G ETF로 NXTG가 있다. NXTG는 2011년 상장 당시 스마트폰 산업 전문 ETF FONE 이었으나 2019년 5월 말 코드를 NXTG로 변경하고 5G 테마 ETF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NXTG 역시 5G 산업을 구성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리츠 등을 고르게 편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FIVG와 유사하다. 다만 FIVG가 미국 기업 비중이 70%를 넘는 반면 NXTG는 미국 기업 비중은 44%로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일본, 홍콩, 인도, 한국, 대만 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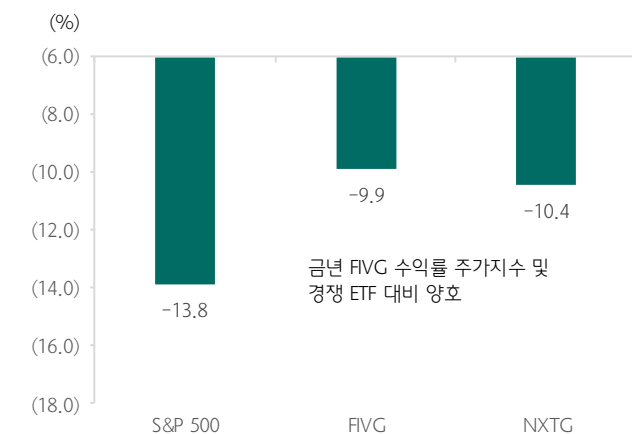
전체적인 퍼포먼스 면에서 FIVG와 NXTG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금년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FIVG가 4월 중순까지 -9.9%로 주가지수 대비 우위를 보였고 NXTG 역시 -10.4%로 양호한 편이었다.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금년 극단적인 하락국면에서 FIVG는 S&P 500지수 보다 다소 안정적인 면모를 보였고 NXTG의 변동성 역시 FIVG와 비슷했다. 다만 굳이 세밀하게 따지자면 FIVG가 NXTG보다 수익성은 조금 더 낮고, 변동성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 말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 하나의 5G ETF를 선택해야한다면 FIVG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9. FIVG 등 5G ETF는 금년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 대비 안정적으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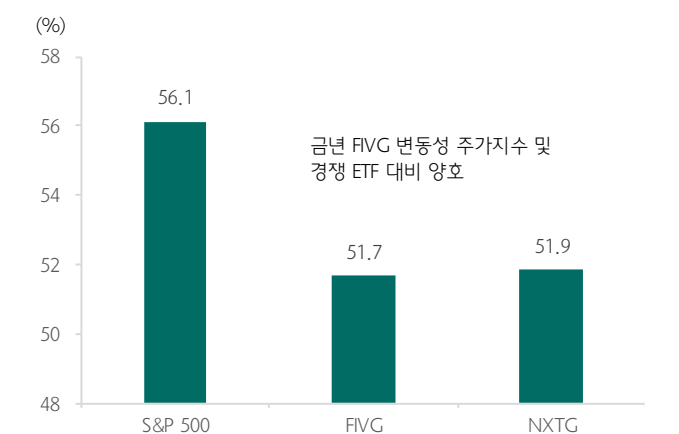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FIVG의 금년 손실 발생했지만 시장 대비 양호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FIVG의 금년 변동성 시장 대비 안정적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